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7 | FEBRUARY 2023



1797년 출생  
1839년 12월 23일 殉教

## 丁情惠 엘리사벳 聖人

2022. 12. 13 필 토른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3년 2월호 / 통권 307호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3©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VOLUME 307 | FEBRUARY 2023

렌즈로 보는 세상	4
사순 시기 신앙 생활표	6
함께 읽는 성경	8 유다서간
교회의 가르침	14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8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22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6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30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2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 음악을 듣다
	40 함께 읽는 세계 문학
	48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52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8 정석의 이 도시
	64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70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 THE COVER

성 정정혜 엘레사벳

그린이: 정도운 엘리야(<http://artist-jdw.com>)



“하루를 밝히는 붉은 빛을 바라보며 삶을 새롭게 마주합니다.”

/  
윤정민 마틸다

# 사순 시기 신앙 생활표

사순 시기 :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예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통회와 보속 그리고 희생으로 재(齋)를 지키는 기간을 말한다(욥기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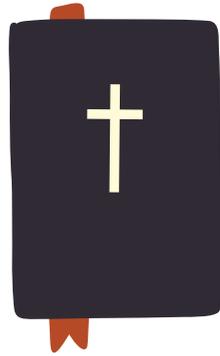
## 사순 시기를 준비하는 신자를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양심 성찰

<b>하느님에 대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li> <li>○ 주일 미사와 의무 축일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가?</li> <li>○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가?</li> <li>○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인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는가?</li> <li>○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길 부끄러워했는가?</li> <li>○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li> <li>○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li> <li>○ 하느님께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강하게 청한 적은 없는가?</li> </ul>
<b>이웃에 대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을 용서하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운 적이 있는가?</li> <li>○ 약한 이를 무시하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은 적은 없는가?</li> <li>○ 이웃을 질투하여 편협하게 행동했는가?</li> <li>○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았는가?</li> <li>○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부추긴 적은 없는가?</li> <li>○ 복음의 가르침대로 배우자와 가정에 충실한가?</li> <li>○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가?</li> <li>○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있는가?</li> <li>○ 새 생명을 거부하거나 소멸시키는 일에 가담한 적이 있는가?</li> </ul>
<b>자기 자신에 대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속적이고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li> <li>○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즐거움에 지나치게 빠져 있지는 않은가?</li> <li>○ 육체적 건강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행동하는가?</li> <li>○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li> <li>○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가?</li> <li>○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는가?</li> <li>○ 사랑이 담긴 마음과 생각, 행동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가?</li> <li>○ 원한을 품고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는가?</li> <li>○ 온화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li> </ul>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2 재의 수요일 사순 시기 동안 지킬 결심 하기	2/23 사순 제2일 목주 기도 고통의 신비 5단	2/24 사순 제3일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2/25 사순 제4일 루카 4,1-13 읽고 묵상하기
2/26 사순 제1주일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성체조배	2/27 사순 제6일 끓고 싶은 나뭇잎을 3가지 적기	2/28 사순 제7일 자신의 연약함을 의탁하며 주모경 5번	3/1 사순 제8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3/2 사순 제9일 마음의 상처를 봉헌하며 목주 기도 5단	3/3 사순 제10일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	3/4 사순 제11일 필리 3,20-41 읽고 묵상하기
3/5 사순 제2주일 미사 30분 전에 성당에 가서 성체 조배	3/6 사순 제13일 가족에게 고마웠던 일 3가지 적기	3/7 사순 제14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주모경 5번	3/8 사순 제15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3/9 사순 제16일 가정 성화를 위해 목주 기도 5단	3/10 사순 제17일 가족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	3/11 사순 제18일 루카 13,1-9 읽고 묵상하기
3/12 사순 제3주일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 주기	3/13 사순 제20일 냉담하는 이웃에게 연락하기	3/14 사순 제1주일 상처받은 냉담자를 위해서 주모경 5번	3/15 사순 제1주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3/16 사순 제1주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냉담자를 위해 목주 기도 5단	3/17 사순 제1주일 냉담자의 회심을 위해 십자가의 길	3/18 사순 제25일 루카 15,1-32 읽고 묵상하기
3/19 사순 제4주일 냉담하는 이웃에게 작은 선물하기	3/20 사순 제27일 교회에 봉헌할 것 생각해 보기	3/21 사순 제28일 교황님을 위해 주모경 5번	3/22 사순 제29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3/23 사순 제30일 청소년, 청년을 위해 목주기도 5단	3/24 사순 제31일 성직자, 수도자를 위해 주모경 5번	3/25 사순 제32일 요한 8,1-11 읽고 묵상하기
3/26 사순 제5주일 깊은 성찰 후에 고해성사 하기	3/27 사순 제34일 나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기	3/28 사순 제35일 더 굳건한 신앙을 청하며 주모경 5번	3/29 사순 제36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3/30 사순 제37일 더 굳건한 믿음을 청하며 목주 기도 5단	3/31 사순 제38일 나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	4/1 사순 제39일 루카 22,14-62 읽고 묵상하기
4/2 주님 수난 성지주일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성체조배	4/3 사순 제41일 예수님께 드리는 편지 써 보기	4/4 사순 제42일 한 끼 단식하여 봉헌하기	4/5 사순 제43일 목주 기도 고통의 신비 5단	4/6 주님 만찬 성목요일 1코린 11,23-26 읽고 묵상하기	4/7 주님 수난 성금요일 하루 동안 소침묵, 십자가의 길	4/8 성토요일 콜로 3,1-4 읽고 묵상하기
4/9 주님 부활 대축일						

## 유다 서간

허영엽 마티아 신부\_서울대학교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유다 서간은 신약성경 27권 중 26번째 성경으로, 25절이 전부인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의 첫째·둘째·셋째 서간과 함께 ‘공동서간’이라 불립니다.

### 1. 유다 서간은 누가 기록했나?

편지의 서두에서 “야고보의 동기인 유다”(1절)가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마르 6,3:마태 13,55)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유다가 이 편지를 직접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간 자체 내의 몇몇 사항이 사도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절에서는 신자들에게 전승된 신앙에 대해 말하고, 17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례처럼 예수님의 형제 이름을 빌어 이 편지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도들보다 후대의 사람으로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집트나 소돔과 고모라, 미카엘 대천사, 모세 등의 유대교의 묵시문학과 전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6-14절).

### 2. 유다 서간은 언제 쓰여졌는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1세기 말에 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세기 초에 기록된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의 내용(4-19절)을 거의 다 인용하고 있고, 1

세기 후반에 형성된 ‘초기 가톨릭적인’ 신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여러모로 애쓰던 참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편지를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3절) 또한 이 편지에서 비판하는 이단자들은 요한묵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니콜라오스파(묵시 2,6)와 비슷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 3. 유다 서간은 왜 쓰여졌는가?

당시에는 그릇된 가르침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이단자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공동체 내에 들어와 자유분방한 생활로 분열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단자들의 실상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그들과 싸우도록 북돋우고, 소중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도록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불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을 방탕한 생활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4절)”. 또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충실한 신자들이 이단자들의 꾀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맡겨진 믿음에 충실하도록 일깨우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 4. 유다 서간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다서는 모두 25절로 된 짧은 편지이지만, ‘이단을 반대하는 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단자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 이단자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1~16절)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단자들의 생활상을 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영을 지니게 되

었다고 자처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지니지 못한 이들,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총을 빙자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천사들을 모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지탄 받는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상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하고 참된 영지(靈智.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를 스스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이요 진실된 하나님마저 부인했습니다. 이 영지의 이름으로 육체를 업신여기고 자연을 거스르는 악덕에 몰두하며, 그리스도의 강생 또한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서간은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대들며, 불평만 하고 허풍 떨며 아침하고 분열을 일삼으며, 거룩한 만찬의 진정한 뜻은 모른 채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욕정만을 채우는 이들이라고 밝힙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인하는 그들은 이미 경건하지 못한 불신앙자로 낙인찍혔으며,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로써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과 맞서 싸워, 고귀한 믿음을 지키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행실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지껄인 모든 무엄한 말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저들은 불평꾼이며 불만꾼으로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잇속을 챙기려고 사람들에게 아침하면서 입으로는 큰소리칩니다.(15-16절)”

◦ 믿음의 기초 위에 서로를 건설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17~25절)

이단자들은 분열을 일삼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믿음을 건설하는 사람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과 혼란을 예고한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의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위험한 이단자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끝맺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20~21절)

유다 서신은 이단이 받을 심판과 교회가 이단을 배척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훈계하고 있습니다. 📖

유다 서간을 읽어보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① 유다 서간을 작성했다고 하는 유다는 누구의 형제입니까? (1절)
- ② 유다 서간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 ③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4절)
- ④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부인합니까? (4절)
- ⑤ 주님께서 백성을 이집트에서 단번에 구해 내셨지만,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 ⑥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고을들도 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7절)
- ⑦ 모세의 주검을 놓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한 대천사는 누구입니까? (9절)
- ⑧ 저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모독하지만, 지각없는 ( )처럼 누구나 본성으로 아는 것들, 바로 그것들로 ( )하고 맙니다. (10절)
- ⑨ 모든 사람을 ( )하시고, 저마다 불경스럽게 저지른 모든 ( )에 따라, 불경한 죄인들이 당신을 거슬러 지껄인 모든 무엄한 ( )에 따라 각자에게 벌을 내리신다. (15절)
- ⑩ 저들은 ( )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 )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19절)

아래의 말씀들을 한주에 하나씩 외워봅시다

1 주간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2절)

2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17절)

3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20절)

4 주간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 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24~25절)



##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 성체성사(1); 가장 근본이며, 가장 으뜸인 성사

왕태연 요셉 신부\_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신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책임감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힘과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예수님과 일치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그 삶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의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친히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6~28)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서 과월절과 무교절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것은, 구약의 “파스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었던 어린양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하느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실 것임을 매우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만찬에 함께 했던 사도들은 세상을 향한 지극히 완전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닫도록 초대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 거룩한 희생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가 기쁨의 ‘축제’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제사’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위기가 더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앞서 성체성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당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28항은, “성체성사의 무한한 풍요로움은 이 성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이 이름들은 각기 성체성사의 어떤 측면들을 환기시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토대로 성체성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성찬례(Eucharistia)”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체성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라는 “감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감사 기도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체성사를 또한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과 관계되는 것으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참여하게 될 하느님 나라에서의 잔치를 떠올리게 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자신을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신다는 의미에서 성체성사를 “거룩한 희생

제사”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어 주셨고,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친교”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체(領聖體)”란 예수님의 몸, 곧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391항은 영성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체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일치성을 증진시켜 줍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얻는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세례성사 때 받은 은총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또한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성체성사는 우리 자신의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 매우 유익하고 더 나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성체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린토 1서 10장 17절의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 일치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영성체를 통해 이루는 예수님과의 일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일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체성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따라서 성체를 받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분명 달라야 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루카 6,32) 📖



Giuseppe Molteni The Confession(1838, oil on canvas, Gallerie di Piazza Scala)

**고해성사 (Sacrament of penance, 라틴어: Sacramentum poenitentiae)**

고해 성사란 칠성사 중 하나로,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로 하여금 세례 받은 이후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받으며, 교회와 화해하도록 하는 성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고 있기에, 그분을 대신해서 교회의 대표인 사제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자를 용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요한 20,22-23)라고 말씀하심으로, 고해 성사를 제정하셨다. 그 후 이 사죄권(赦罪權)은 사도를 거쳐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와 사제들에게 전해졌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마태 18,18), 사제는 그 교회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화해의 임무를 주셨고(2고린 5,18; 사도 2,38), 성령도 죄를 사해 주셨으며, 기도와 극기와 선행 등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죄를 용서할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마태 10,1).

구약 시대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범하기 전에 하느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구세주를 약속하셨고, 니스워 사람들이 속죄하지 않을 거두시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은 죄를 뉘우치고 재계(齋戒)와 고해를 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공식적으로 통회와 함께 어린양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예식을 행하였다.

신약 시대에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마태 3,2)고 외쳤고, 사도 요한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다(요한 1,29-30).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고(루카 7,48), 죄인의 회개는 하느님 앞에 즐거움(루카 15,3-10)이었다. 또한 그리스도는 사죄권을 강조(마르 2,1-12)하셨고, 그 전제 조건으로 통회와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결심을 요구하셨다.

3세기 이전까지는 그 형식과 시행 방법이 명백하지 않았으나, 그 후부터는 참회의 규율이 나타났다. 6세기 성 아우구스티노는 세 가지로 참회의 형식을 구분하였다. 즉 세례로 새로 나는 형식, 가슴을 치는 형식, 중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너무 엄격하여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6세기 이후에는 사적 고백(私的告白), 즉 비밀 고백(秘密告白)의 형식이 등장하였다. 그 후 이 형식은 12세기에 쇠신되었고, 4차 라테라노 공의회(1215년)는 확실한 규정을 세웠다. [출처:용어사전]

「가톨릭 직장인」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④

‘기본적인 인권들’의 목록은 확정된 것일까?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1979년과 1995년 각각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인류의 도덕적 진보 도정의 진정한 이정표”이며 “이 시대 인간 양심의 지고한 표현들 가운데 하나”라고 칭송했습니다.

UN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에 관해 홈페이지(영어)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문서이다. 세계 모든 지역의 여러 다른 법적, 문화적 배경들을 가진 대표자가 그 밑그림을 그린 이 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모든 나라와 그 나라들의 국민이 공동으로 성취해야 할 하나의 기준으로서 선포되었다(총회 결의 217A). 이 선언은 보편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들을 최초로 공표하고, 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선언은, 오늘날 전 세계 및 지역 수준들에서 영속적 기반으로 적용되어, 70개 이상의 인권 조약들의 채택에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 채택의 길을 닦은 것으로 널리 인정 받고 있다(그 조약들의 전문들은 모두 이 선언에 대해 언급한 것들을 담고 있다).”

또 지난 호에서 보편성, 침해 불가성, 양도 불가성, 전체성, 불가분성이라는 인권들의 특성을 소개했는데, 관련하여, UN이 직접 설명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보편성에 관하여:** “인권들의 보편성의 원리는 국제 인권법의 주춧돌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우리의 인권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양도 불가성에 관하여:** “인권들은 양도할(될) 수 없다. 인권들은, 특정한 정세에서 또 합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해방(자유)에의 권리는 어떤 한 인물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제한될 수도 있다.”

**불가분성과 전체성에 관하여:** “모든 인권은 불가분하며 서로 의존한다. 이는 권리들의 한 집합은 나머지 집합의 권리들이 없다면 충분히 향유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에 있어 진보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행사를 더 쉽게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많은 권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평등성과 비-차별성에 관하여:**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인간 존재는 존엄과 권리들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제2조에서 공표된, 차별로부터의 자유는 이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비-차별성의 원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과 모든 형태의 여성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중심 논지를 제공한다.”

이제, 인권들의 목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앞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UN의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권들’은 ‘모든 나라와 그 나라들의 국민이 공동으로 성취해야 할 하나의 기준’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권이 그 자체로 확정·망라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회원국들은 기권하거나 반대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권리들이라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그래서 ‘기본적’이라 할만한 인권의 목록을 국제기구인 UN이 공표하였습니다.

둘째, 다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들이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국민이 공동으로 성취해야 할 기준’이라는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은 그 나

라 국민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마다 그 국민의 ‘권리들’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또 개정될 수 있으며, 그 개정에 따라 ‘권리들’의 목록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세계인권선언은 ‘기본적인’ 인권들의 목록을 ‘최초로’ 공표했으며, ‘70개 이상의 인권 조약들의 채택에 영감을 불어넣고, 또 그 채택의 길을 닦은 것’으로 ‘널리’ 평가 받는다는 것 역시 확정된 ‘인권들의 목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확정됐다기보다 계속해서 계발되어 인식(認識)·인정(認定)·존중(尊重)되어야 할 ‘목표’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확정한 그 ‘목록’이 없기는 하지만, 대체로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인권들’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1세대 인권: 시민적 권리들, 정치적 권리들
- 2세대 인권: 경제적 권리들, 문화적 권리들, 사회적 권리들
- 3세대 인권: 발전의 권리들, 환경의 권리들, 평화의 권리들

1세대 인권을 자유권(權, 또는 圈)으로, 2세대 인권을 평등권, 3세대 인권을 연대권으로 각각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을 참조하시면 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협약은 1966년에 UN에 의해 채택되어, 1976년부터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발합니다.

또 3세대 인권, 곧 ‘연대권’에 관해서는 아직 국제 규약들이 없습니다. 이는 ‘집단들의 발전에의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가꿀 집단의 권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살아야 할 집단의 권

리’ 같은 그런 연대의 인권들이 그만큼 널리 인식(認識)·인정(認定)·존중(尊重)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충분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들에 관한 인식과 인정과 존중은 성취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류가 또 저마다 힘껏 성취해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발·확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그 때문에 무엇을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들로 삼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인류 전체 또는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명확한 인식과 인정뿐 아니라, 그 존중에 있어 확고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셋째, 그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대화를 통한 합의와 그 합의 이행의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법률 마련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차원의 대화가 필요한 까닭은 구체적으로 특정 정세에 따라, 또 개인이나 집단의 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열망하는 자유와 물질적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이 열망하는 자유는 그 구체적 내용과 표현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효적 법률 마련이 필요한 까닭은,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자유’를 사회가 천명했더라도, 그 ‘자유’의 실현 및 보호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있어야만,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침해되었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으로서든 한 사회(가족, 지역, 국가, 세계)로서든, 그 품위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문화, 경제, 정치, 과학, 국제관계 등)에서 구체적이며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 교회가 ‘인권들’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명도회장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 복자(1)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124위 순교 복자 중에 정약종만큼 알려진 이도 없습니다. 다산의 3형제 천주교도 중에 가운데였던 정약종은 가장 뒤늦게 천주교에 입문하였습니다. 형 정약전과 동생 정약용이 아주 일찍부터 서학(西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천주교인이 된 것과는 달리 정약종은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도교(道敎)의 신선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황사영 백서에는 정약종이 선도(仙道)에서 천주교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성질이 강직하고 의지가 굳세고, 무엇에나 자상하고 세밀함이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일찍이 선도를 배워서 영원히 살 뜻이 있어 영똥하게 천지개벽설을 믿었다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천지가 다시 변하는 때는 신선도 역시 함께 사라짐을 면치 못할 터이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니기에 배울 것이 못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교의 도리를 들어 독실히 믿고 열심히 실천하였습니다.” (백서 35-36행)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있었던 정약종은 불로장생한다는 신선(神仙)의 그릇된 사상에서 벗어나 천주교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약종은 자신이 두 형제보다 뒤늦게 천주교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마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늦게서야 하느님을 찾은 것에 비유하여, 스스로 세례명을 아우구스티노라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추국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1786년 3월경 형인 정약전에게 세례받았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막 이 땅에 세례와 기도 공동체가 형성되어 한국교회가 시작할 무렵이었고, 이른바 평신도 중심의 교계제도, 가-성직제도가 실시되는 때였습니다.

1791년 진산사건으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날 때, 정약종만큼은 더욱 깊이 천주교를 믿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계 생활을 위해 자신의 고향인 마재에서 멀지 않은 양근의 분원

(分院)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후 그의 측근으로 교리를 심화시키면서, 명도회(明道會) 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그러한 순명 안에서 한글 교리서가 탄생하였습니다.

명도회는 주문모 신부가 북경에 있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전교 단체로, 교리 공부와 복음 전교를 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주일에 모임을 열어서 3-4인, 5-6인의 소그룹으로 교리공부를 하고,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보고하면서 전교 자금을 위한 헌금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명도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후 추천을 받아 등록을 한 후, 1년 동안의 신공(神功=기도와 선행)을 평가한 후에 주문모 신부의 재가로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여성들도 이러한 명도회원이 있었고, 남녀가 함께 모이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에는 여성 명도회원을 통해서 여성전교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약종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이라 하면, 『주교요지』라는 훌륭한 한글 교리서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이 최초의 한글 교리서의 작성 배경 역시 황사영 백서에 나타납니다.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을 만나면 힘을 다해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를 허가 굳고 목이 아플 정도까지 하여도 싫증내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으며, 아무리 막힌 사람이라도 그의 앞에서는 깨치지 못하는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무식한 교우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한글로 「주교요지」 두 권을 저술하였는데, 성교의 여러 책을 널리 인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서 아주 쉽고 명백하게 썼으므로, 어리석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라도 책을 펴 보기만 하면 환히 알 수 있고 한 군데도 의심스럽거나 모호한 데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이 책이 이 나라에서 「성세추요」보다도 더 요긴하다고 하여 그 간행을 인준하였습니다.”(백서 36-37행)

그렇습니다. 1791년 조상제사의 금지 소식을 들은 이들 가운데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이제 양반과 중인 중심의 천주교 공동체는 어느덧 평민들과 천민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고, 한문으로 된 각종 교리서, 묵상서, 기도서 등이 한글로 번역되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한 지역이나 언어나 민족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전해져야 합니다. 정약종은 자신의 하인 임대인에게도 십계명을 가르쳤고, 노비를 사면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약종이 저술한 한글 교리서가 얼마나 명확하고 쉬웠으면, 어린아이들이 보아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가 보기에도 중국에서 나온 매우 자세한 한문교리서『성세추요』보다도 훨씬 더 요긴하다고 즉시 인준해 주었습니다.

『주교요지』의 주요한 대목을 소개하기에 앞서 정약종의 심문 기록과 순교의 장면을 정리해봅니다. 3형제가 함께 체포되어 심문을 받고 있었을 때, 정약종은 형인 정약전에 게 세례를 받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형과 아우가 천주교를 이미 떠난지가 오래되었고, 자신은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실 정약종은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넉지시 형과 아우가 살아 남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정

말 그렇게 정약종은 사형 판결이 되었고, 형과 아우가 유배형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신문하는 이는 정약종에게 교주(敎主)가 누구인지, 주문모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너의 천주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정약종은 답합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사정(人之常情)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움을 버리고서 살자 하는 것이니, 그래서 고발하지 않습니다. 천주(天主)는 곧 하늘과 땅의 큰 임금 큰 아버지(大君大父)이니 천주의 도(道)를 섬기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으로서, 살아도 죽음만 같지 못합니다.”

이처럼 당당하게 대답한 정약종에게 그가 바라던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을 강론대로 만들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의 얼굴은 아주 빛났다. ...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흠승하올 천지만물의 대주재이신 이가 당신들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십니다. 당신들은 모두 회개하여 당신들의 근본으로 돌아와야 하오. 그 근본을 어리석게 멸시와 조소거리로 삼지 마시오. 당신들의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내게는 곧 영원한 영광거리가 될 것입니다.’ 형리들이 그의 말을 중단시키고 나무토막 위

에 머리를 대라고 하니, 그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머리를 누이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다. 망나니는 벌벌 떨며 감히 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감탄보다는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므로 자신없는 손으로 첫 번 칼질을 하였다. 목은 절반 밖에 끊어지지 않았고, 아우구스티노는 일어나, 보라는 듯이 크게 십자성호를 긋고 조용히 다시 첫 번 자세로 돌아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다.” (달레의 천주교회사 상권)

그렇게 42세의 나이로 형과 동생을 남기고 순교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순교자는 같은 해 정철상 가롤로라는 아들과 함께 순교하였고, 후에 부인 유선임 체칠리아, 정하상 바오로, 정정혜 엘리사벳이 1839년 순교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한글교리서『주교요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번에 소개하겠습니다. 

### 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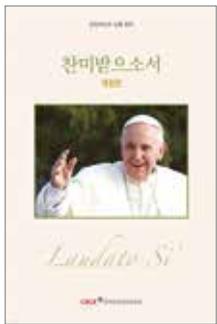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영원한 것’은 어디 있을까? 정약종이 발견한 천주교에는 어떠한 ‘영원’이 있는가?

정약종처럼 형과 아우가 배교하는 상황에서 끝까지의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있을까? 내가 가진 신념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통합 생태론 (2)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듯이, 통합 생태론은 자연 생태뿐 아니라 인간 생태와 사회 생태를 포괄합니다. 단순히 ‘녹색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적 사회적 차원을 분명히 존중하는”(137항) 접근을 하며 통합적인 발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 문제를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일상 생활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성찰하는데, 이번 달에는 통합 생태론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사회 생태론

우리는 흔히 자연을 인간의 삶을 위한 배경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자연은 우리 자신과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자연이 깃들어 있

고 자연 안에 내가 깃들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 속하므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합니다”(139항).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역시 자연을 벗어나지 못하겠지요. 회칙이 ‘환경’을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139항)로 이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에 관한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회칙은 우리가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139항)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은 서로 연관된 문제이기에 창조세계의 돌봄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정의는 함께 이야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평화와 정의, 그리고 피조물 보호는 서로 철저히 연결된 주제”(92항)이고, 빈곤 퇴치와 소외된 이들의 존엄성 회복과 열대우림 보존은 개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생태 정의를 위해서는 오늘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경제 시스템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생산 과정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와 규격화를 추구”(141항)하는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지구의 통합성을 보존하는 ‘경제 생태론’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지구 공동체의 안녕은 사회 질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이 있어도 실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제도의 건전함”(142항)을 강화하고 그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생태론’도 통합 생태론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문화 생태론

통합 생태론은 인류의 문화 유산과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실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 못지않게 생태계 보전에 중요합니다. 다양한 문화 유산은 “한 지역의 공동 정체성을 이루고 살 만

한 도시 건설의 기초”(143항)가 되고, 자연에 적응하며 형성된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을 가장 잘 돌보는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는 대량 생산과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문화를 세계 전역에 획일적으로 확산시켜 문화적 다양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회칙은 “단일한 생산 방식에 연결된 하나의 지배적인 생활 방식을 강요”(145항)하는 것이 생태계의 개조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문화에 기초를 둔 문화 생태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화의 획일화에 맞서 우리가 지역의 문화 전통과 생활 양식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획일화된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지역적 문제들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지역 사회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칙이 “토착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 전통”(146항)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다른 문화의 관점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 공동체가 지니는 고유한 문화는 쓰고 버리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역을 오랫동안 보살펴온 지혜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 일상생활의 생태론

통합 생태론은 “인간 삶의 온전한 증진”을 위해서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공간”(147항)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삶이 벌어지는 건물, 동네,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연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상생활 공간을 생태적으로 만드는 일은 인간과 지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적인 생활 공간을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설계 자체가 생태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질, 인간과 환경의 조화,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조화를 이루는 요소들을 잘 고려하

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감과 편안함을 증진하는 공공장소와 경관을 가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라는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좋은 주거지로 통합시키기 위한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신을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바로 이 통합을 새로운 발전 요인으로 만드는 도시들”(152항)은 아름답습니다. 교통수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교통 체계는 공해와 불편과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적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생태론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정의와 생태정의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복지 증진에 힘쓰는 것이 곧 생태적인 일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일이 결국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입니다. 또한 통합 생태론에서는 인간 생명에 대한 교회의 관심도 생태적인 주제와 연결됩니다. 낙태와 안락사 반대 운동처럼 인간 생명을 지키는 일과 멸종 위기 종을 보호하고, 숲을 지키고,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는 노력은 같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낙태를 반대하면 ‘보수’ 기후 변화를 막자고 하면 ‘진보’라고 하지만, 인간생명 운동과 환경 운동은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회칙이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117항).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 성 메토디오

St. Methodius (축일: 2월 1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 작은형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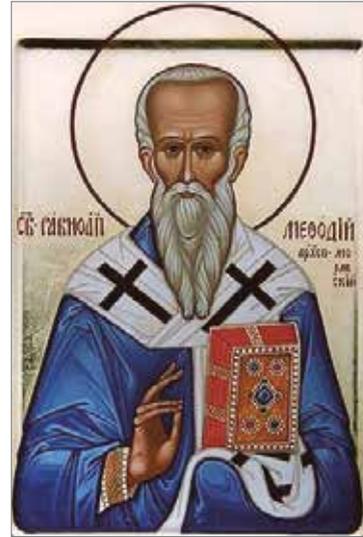
영국 성공회에서 분파되어 나온 개신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리교회(監理敎會, Methodist Church)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보았던 영국 성공회 성직자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영국이 신앙적 침체에 빠져 있을 당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병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성공회가 등한시하였던 성경과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고찰하면서, 진리를 잘 비추는 교회라고 하여 감리교회라고 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앙생활에서는 간과했던 부분을 새로운 방법으로 채택하였다고 하여, 방법론자의 교회라고 하여 메토디스트(Methodist) 교회라고 하지 않으나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항상 본질과 형식의 딜레마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편향되기만 한다면 항상 길이 어긋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주님의 메신저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성 메토디오 대주교도 슬라브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인물이었습니다.

본디 그리스어로 μετ’ (메타met’, 관심, 추구 “concerning pursuit”) + ὁδός(호도스 hodós, 길“road, way”),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따라야 할 길”(the way to follow)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토디오 성인의 이름은 그 성인의 노선과 삶이 주님이 주신 모범의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성인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는 그리스 테살로니카에서 형인 성 치릴로와 함께 고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과 함께 863년 모라비아인(체코 공화국 내의 모라비아 지역에서 온 서부 슬라브 민족 그룹)들을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그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개종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두 형제의 슬라브어



실력이 대단하였습니다. 현재의 러시아어를 키릴문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치릴로 성인의 공로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동생 메토디오 대주교는 자신의 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라틴어 중심주의를 주장하던 당시 게르만 교회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제 라틴교회에 새로운 민족 언어인 슬라브어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것을 옹호하던 메토디오 성인은 당연히 슬라브어 전례서의 편찬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후에 교황 요한 8세가 슬라브어 전례서 사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었기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렇게 힘든 투쟁을 하던 가운데 성 메토디오와 성 치릴로는 슬라브 민족의 수호성인으로 칭송이 되었고, 동유럽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 추앙을 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했던 슬라브어 전례는 러시아 전례가 되어 러시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그대로 전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유럽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박해와 반대를 받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다 달리는 사람, 위축된 신앙에 새로운 활력을 다시 성령님과 함께 불어넣는 창의적인 사람, 그런 주님의 종이 바로 성 메토디오 대주교이셨습니다. 우리도 형식과 규범에 갇힌 신앙과 일상에서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더 드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적극적으로 더 찾아나설수록 살아갈 힘을 더 크게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로마 12,2). ☺

#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2. 삶을 바라본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작년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으로, 공자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라고 말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라는 의미다.

이를 추천한 박현모 세종 리더십 연구소장은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은 없다”며 “그러는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교수들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소인배 정치를 비판했다. [동아일보 2022.12.12. 발췌]

### Question

신앙인으로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잘못을 저지른 후에 현실과 타협하거나 회피한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나와 내 주변의 왜곡된 현실에서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를 시도한 사례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도덕적 선택 앞에서 양심은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 맞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이성과 하느님의 법에서 거리가 먼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인간은 때로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에도 늘 정당하고 선한 것을 찾아야 하며 하느님의 법에 담긴 그분의 뜻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은 신중함의 덕과,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과, 성령의 도움과 선물에 힘입어, 경험의 자료와 시대의 징표를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아래 몇 가지 규칙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야” (마태 7,12).[56] 이것이 ‘황금률’이다.
- 사랑은 항상 이웃과 그의 양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약한 그들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1코린 8,12).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로마 14,2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786항-1789항]

## 5. 실천계획을 세운다.

##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고전 음악을 듣다

시벨리우스(1865-1957)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와 '죽음의 무도'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 법학과 교수

1907년 10월 말러가 핀란드 헬싱키를 방문했을 때 시벨리우스(1865-1957)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지휘자로 유명하면서 교향곡의 작곡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공통점을 가졌다(당시 브루크너는 그의 말년에 독일어권에서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 1907년은 두 사람 모두 새로이 발표한 교향곡들(시벨리우스는 3번, 말러는 7번)이 전작에 비해 못하다는 냉대에 시달리는 점도 공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한 교향곡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러의 유명한 말이 나온다: “아니요, 교향곡은 세계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이 응답을 이끈 시벨리우스의 발제는 “교향곡은 진지한 주제들이 깊은 논리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였다. 시벨리우스는 그 당시 말러와 함께 전통적 교향곡의 지평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교향곡 작곡가로 유명하였다. 그의 말러에 대한 발제를 보면 말러에 비해 열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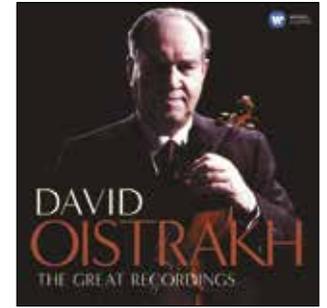
보수적으로 보이지만, 소나타 형식을 거부하였고, 자신만의 독특한 화성과 관현악법을 가진 ‘소리’의 혁신가였다. 또한 조국 핀란드의 건국 신화에 바탕을 둔 ‘핀란드어’ 등 핀란드의 광활한 자연을 묘사하는 듯한 그의 관현악어법으로 핀란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에 ‘핀란드음악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국민 영웅이었다. 교향곡 작곡가로 유명한 시벨리우스이지만, 여기서 시벨리우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Op.47**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인생역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벨리우스는 당시 러시아에 속했던 작은 군부대 마을 Hämeenlinna에서 1865년 12월 8일 태어났다. 출생 신고한 원래 이름은 “Johan Christian Julius”이었지만, 부모는 작은아버지의 불어식 중간 이름 “장(Jean)”을 따서 아들을 불렀고, 시벨리우스도 이를 좋아하여, 결국은 ‘장 시벨리우스’로 내내 알려지게 되었다. 시벨리우스가 3살 때, 군의관이

자 외과 의사였던 아버지는 잘못 선 빛보증으로 어머머마한 빛(13,500유로)을 잔재 돌연장티푸스로 사망하였고, 장례비까지 더하여 15,000유로의 빚을 지고 파산하였다. 어머니를 따라 외할머니 집으로 이주하였지만, 여름철은 친할머니와 고모가 사는 Loviisa에 가서 보냈다. 이때 고모 Evelina는 Loviisa의 여름 음악회에 자주 시벨리우스를 데리고 갔는데, 이는 외로운 시벨리우스가 음악을 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후에도 시벨리우스는 자신을 음악으로 인도한 고모를 두고 “Evelina 고모는 나의 태양이자 기쁨이었다”라고 회상하곤 하였다. 시벨리우스는 1874년(9살) 피아노를 시작하였지만, 뒤늦게 1880년(15살)에 시작한 바이올린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두각을 나타내었다. 당시 바이올린 교사 Wasiljeff는 그를 ‘음악천재’라고 불렀을 정도였다. 그러나 가족은 시벨리우스가 음악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시벨리우스는 헬싱키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지만, 음악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몰래 1885

년 헬싱키음악원에도 등록하였다. 시벨리우스에게 1888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되었다. 먼저 헬싱키음악원에 1888년 새로 피아노와 작곡 담당 교수로 새로 부임한 젊은 부조니(1866-1924)는 첫눈에 시벨리우스의 작곡 재능을 알아보고 작곡을 독려했고, 시벨리우스는 바이올린 이외에도 작곡에 자신감을 얻어 본격적으로 작곡가의 길로 들어선 해였다. 또한 음악원 동료의 여동생 17살의 Aino Järnefelt(1871-1969)를 만나 사랑에 빠진 해이기도 하였다. 이제 음악원에서 장래 핀란드음악을 이끌 재목으로 주목받은 시벨리우스는 장학금을 받아 독일 베를린(1889-90)과 오스트리아 빈(1890-91)으로 유학을 떠났다. 베를린에서 브루크너의 3번 교향곡에 큰 감명을 받고, 브람스나 브루크너의 지도를 받고자 베를린을 떠나 1891년 빈까지 갔으나, 빈에서는 바이올린 주자로는 인정받지 못하여, 그에게 평생 ‘실패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한을 남기게 되었다. 1891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지만, 아직 무명의 시벨리우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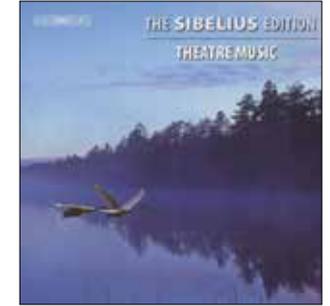
David Oistrakh - The Great Recordings  
 Release Date: 4th Aug 2008  
 Catalogue No: 2147122  
 Label: Warner Classics  
 Series: Artist Boxes  
 Length: 19 hours 36 minutes  
 Grammy Awards  
 17th Awards (1974)  
 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Recording





**Tchaikovsky & Sibelius: Violin Concertos**

Kyung Wha Chung (violin)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ré Previn  
 Release Date: 11th Sep 2006  
 Catalogue No: 4757734  
 Label: Decca  
 Series: Originals  
 Length: 65 minutes  
 Recorded: Kingsway Hall, June 1970



**The Sibelius Edition Volume 5 - Theatre Music**

Lahti Symphony Orchestra, Gothenburg Symphony Orchestra, Osmo Vänskä, Neeme Järvi  
 Release Date: 28th Jul 2008  
 Catalogue No: BISCD191214  
 Label: BIS  
 Series: New Sibelius Complete Edition  
 Length: 7 hours 45 minutes

하였던 첫 일은 은행 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겨우 고모 Evelina에게 기대어 살며 작곡에 몰두하였다. 1892년 핀란드 건국 신화를 묘사한 합창교향시 'Kullervo'(5악장의 관현악, 남성합창, 소프라노, 바리톤)가 초연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핀란드의 떠오르는 별'(당시 비평가들의 찬사)이 되었다. 이 성공으로 여러 음악원의 강사 자리를 얻고, 1892년 6월 드디어 아이노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1896년에는 모교 헬싱키음악원의 교수에 응모하여, 드디어 교수직에 취임하였고 점차 명성을 얻어가기 시작하였다. 시벨리우스의 인생 여정을 여기까지만 보면 비록 바이올린에는 실패하였지만, 말러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빛이었다. 헬싱키로 이사하여 주당 30시간이 넘게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썼지만, 1904년 Järvenpää의 Tuusul호수가의 친척땅(헬싱키에서 45km 북쪽)을 구입

하여 집(부인의 이름을 따서 '아이놀라(Aino-la)'라고 명명함)을 건축하면서 점점 더 빛을 늘어난 갔다. 늘어나는 빛과 함께 1897년 어머니가 사망하자, 시벨리우스의 생활과 함께 시작된 음주도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난 갔다. 1898년 시벨리우스는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빛은 35,000유로에 달했다. 1898년부터 예술가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흔히 인터넷 정보에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여 배부른 시벨리우스가 만년 30년간 작곡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연금은 연 9,000유로로 겨우 생활 보조금 정도의 액수였다), 1908년에는 빛이 280,000유로에 달했다. 은행은 더 이상 장기 대출을 해주지 않아 단기대출로 생활비를 메꾸기에 바빴다. 그는 단시간에 다수의 작품을 작곡하여 국내보다 인세를 더 많이 주는 독일 출판사(Robert Lienau)와 1905년부터 1909년까지 계약하여 50,000유로를 벌었지만, 여

전히 빛은 320,000유로가 되어 파산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후원자들이 일부를 갚아주어 간신히 파산을 면하였다.

위의 금액은 유로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물가로는 엄청난 액수였다. 이렇게 평생 시벨리우스를 괴롭혔던 빛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흔히 인터넷 정보는 그의 알코올 중독과 낭비벽을 지적한다. 물론 전기물 등 기록을 보면, 1903년 레스토랑에서 거의 매일 200유로를 지불한 증거가 남아있기는 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03년이면 우리가 다들 바이올린 협주곡에 매달린 해였다. 그러나 인터넷 정보와 달리, 시벨리우스는 비록 초연의 실패로 개작을 하면서 음주에 빠졌지만,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다. 1904년 아이놀라를 건축하기 위해 1903년부터 술을 자제하기 시작한 기록도 나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바이올린 협주곡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시벨리우

스 작품 중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손위 처남 Arvid Jänefelt의 연극 '죽음(Kuolema)'에 붙인 부수음악 '슬픈 왈츠(Valse Triste)' Op.44(1903년)도 부족한 건축비를 메우기 위해 혈값에 팔아넘겼을 정도였다. 이 곡은 연극 '죽음'의 부수음악이기에 '죽음의 무도'라고도 불린다. 연극 '죽음'에서 임종을 앞둔 여인이 비몽사몽간에 왈츠의 가락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환상의 손님과 왈츠를 추고, 문소리가 나면서 춤이 그치고 손님이 사라지면 문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 있다는 몽상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이 나오는 왈츠이다. 어쩌면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추는 마지막 춤으로 우리로 치면 '씻김굿'이라고나 할까. 시벨리우스의 이런 노력 끝에 드디어 1904년 9월 24일 아이놀라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이놀라는 그토록 비용을 많이 들인 호화건축물이었을까? 아니다! 지금은 관광 필수코스로서 보존되어있는 아이놀

라에 가보면, 그 작고 소박한 규모에 모두 놀란다. 비좁은 집 아이놀라 탓에 아이들은 아버지의 작곡을 위해 늘 조용히 다니라고 교육받았고, 시벨리우스는 어린 자녀들의 시끄러움을 피해, 주로 밤에 작곡하였다. 자금 부족으로 더욱이 건축도 완공된 것도 아니었다. 한참이 지난 1911년에야 윗마루를 완성한 기록이 남아있다. 1907년 후두암 판정을 받은 후, 술을 끊고(1907-09년 수 차례의 수술) 레스토랑을 멀리하였고, 은행의 장기대출도 받았지만, 1911년에도 빚은 여전히 230,000유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독일 출판사로부터의 인세 수입도 끊기면서 1918년에도 50,000유로의 빚을 지고 있었고, 핀란드 정부가 주는 예술가 연금도 조금 오르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등의 연주가 증가하면서, 간신히 조금씩 빚을 줄여가다가, 1927년(62세)에야 겨우 빚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뒤늦게 1927년에야 핀란드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핀란드가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886년의 베른(Bern) 국제협약(최종 개정: 1971년 파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시벨리우스의 불행이었다.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이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인기리에 자주 공연되고 있었으므로, 만일 저작권법이 적용

되었다면 시벨리우스는 그토록 힘들게 빚을 갚아나가며 작곡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1926년(61세)에, 시벨리우스는 갑자기 절필을 선언하고 1957년 사망까지 30년간 작곡을 하지 않은 채, 아이놀라에 칩거하였다(이른바 “Järvenpää의 30년의 침묵”). 역설적으로 오히려 절필을 선언한 후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시벨리우스의 작품은 핀란드는 물론 세계적으로 더 자주 연주되었고, 그에 따라 갑자기 그의 저작권료 수입은 크게 증대하였기에 그 많은 빚을 한꺼번에 청산할 수 있었다. 이제 핀란드에서 12월 8일 시벨리우스의 생일은 “핀란드음악의 날”로 정해 국기를 게양할 정도가 되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도 1930년대에 야사 하이페츠가 연주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오늘날 고난도의 기교를 가진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아지면서 특히 젊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가장 사랑받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하나가 되었다.

시벨리우스는 평생 빚을 갚으려고 다작을 하였고, 말년에는 아이놀라에서 30년간 칩거하였다고 요약된다. 그의 인생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하므로, 말러에 비해 그다지 파란만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애호가들을 자극하기 위해서인지 인터넷에서는 과장된 오

류가 자주 보인다. 암으로 투쟁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후두암은 양성으로서 완치되었고, 베토벤의 귓병처럼 과장된 그의 귓병 루머는 사실 그저 단순한 중이염으로서 2년 만에 완치되었으며, 말년에 연금을 풍족히 받아 작곡을 그만두었다는 루머는 실제로 국가 연금 액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사실 빛의 청산은 핀란드 저작권법 개정으로 가능하였다. 빛에 쫓기면서 다작을 한 그의 일생이 낭만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빛의 압박은 그에게는 생활고였고 현실이었다. 하룻밤에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최고급 샴페인을 마셔버린 시벨리우스의 기록은 필자에게는 ‘30년의 침묵’의 현실적 무게로 보여진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그의 (‘말러만큼’) 독특한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다면, 그 마지막 퍼즐조각은 시벨리우스의 깊은 내면의 고뇌일 것이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단순히 ‘국민음악파’라거나 핀란드의 광활한 숲(자연)의 묘사라거나 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내면적으로 깊고 광활한 ‘소리(sound)’이다. 우선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얼마나 깊은 소리를 내는지 요약한다면, 젊은 시절 꿈이었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시벨리우스’를 상상해보면 고난도의 기교가 요구된다(요즘과 달리 당시에 고난도의 기교를

소화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극소수였기에 초연은 연주의 어설피름으로 대실패로 끝난다). 다음으로, 시벨리우스의 음악에는 빈고전주의, 초기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표현주의, 20세기 음악이 다 들어있는 종합세트로서, 그는 형식을 거부(특히, 소나타 형식을 거부함)하고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의 음악은 그 깊이만큼이나 ‘불과 얼음의 사운드(fire and ice sound)’로 유명하다. 마치 뜨거운 내면의 불꽃이 분출되어 차가운 얼음장을 짝 소리 나게 녹여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 왜 그의 음악은 그토록 뜨거우면서도, 그토록 차가운 독특한 소리를 내는 것일까? 그 답은 위에서 설명했던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에 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추는 ‘슬픈 왈츠’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1악장에서 불현듯 제2주제로도 나온다. 마지막 3악장 론도는 ‘북극곰을 위한 폴로네이즈’가 론도주제이다. 북극의 얼음을 녹일 정도로 뜨거운 당당한 춤 폴로네이즈는 드디어 북극의 두꺼운 얼음조각을 녹여버렸다. 타는 불꽃의 목마름으로 두꺼운 얼음과 같은 차가운 죽음도 단숨에 깨버리듯... 🐻

### 함께 읽는 세계 문학

## “이 이야기에는 내가 있다.”

### -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소설과 버림의 심리학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영문과 석좌교수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러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그리움의 대상이다. 자크 데리다가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을 “그리움과 한숨”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고향은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 혹은 “모든 여행과 모든 거리를 거기에서부터 가늠하는 부동의 장소”라서 그리움과 한숨은 시도 때도 없이 그곳을 향한다. 그만큼 고향은 원초적인 감정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그리스어 동사 디아스페이로(διασπείρω)에서 파생한 말로 “흩어지다”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고향을 떠나 변경으로 이주해 사는 그리스인들을 지칭하다가 바빌로니아에 유배된 유대인들을 지칭했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되었다. 중국이나 일

본,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의 삶도 디아스포라의 삶이다.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향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유목민의 삶으로 내몬 것은 많은 경우 식민역사의 광풍이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술가는 작가는 개인, 크게는 이웃이나 공동체의 실존적 삶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실존을 담아내는 것이 예술가의 책무 중 하나라서 그렇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예술가들은 자신이 택한 언어로 고향에 대한 감정을 쓴다. 작가는 문자라는 언어로, 화가는 색채라는 언어로, 작곡가는 소리라는 언어로 고향에 대한 감정을 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은 소리로 고향을 썼다. 그가 만든 술한 곡들에 고향을 향한 한숨과 그리움이 배어 있는 것은 그래서다. 그의 음악 어딘가에는 그가 사랑하는 고향 통영 바다 냄새가 배어 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가 몸담고 살던 유럽과 그가 그리워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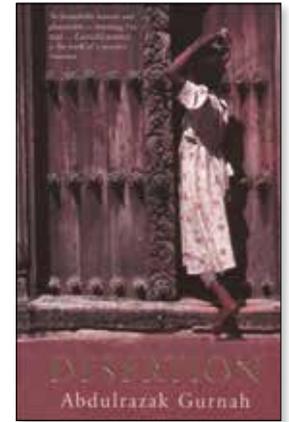
고향이 교차하면서 빚어지는 복합적 소리의 향연이고 충돌이다. 고향은 그렇게 예술의 의식도 되고 무의식도 된다.

20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소설에도 고향 잔지바르를 향한 그리움과 한숨의 물결이 넘실댄다. 1987년에 발표한 첫 소설 『떠남의 기억』에서부터 2020년에 발표한 『그 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고향과 관련된 감정과 소회를 소설에 투영해왔다. 왜 그러한지는 그가 살아온 삶과 역사를 조금만 들춰보면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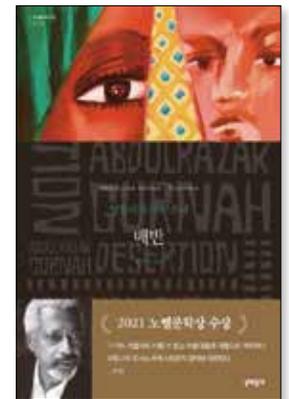
그는 잔지바르가 영국의 보호령이던 1948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1968년 스무 살의 나이로 잔지바르를 떠나 식민종주국인 영국으로 가서 대학에 다녔다. 그가 영국으로 간 것은 이슬람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역사가 그를 디아스포라의 삶, 유목민의 삶 속으로 내던졌다. 그의 소설들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적인 텍스트인 것은 그가 사는 삶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예술은 늘 그렇게 예술가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의 고향 잔지바르는 포르투갈 식민지(1498-1698)였다가 오만 제국의 속국(1698-1890)과 영국의 보호령(1890-1963)을 거쳐 1963년 12월 11일에 술탄을 지도자로 하는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만인 1964년 1월 12일에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주의자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술탄을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잔지바르는 196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탕가니카와 합해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탄자니아**가 되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군은 아랍계 및 아시아계 아프리카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구르나의 말에 따르면 “수



Desertion  
Abdulrazak Gurnah  
Bloomsbury Publishing\_2006.05.01



배반  
Abdulrazak Gurnah 지음  
황기환 번역\_문학동네\_2022.10.20

천 명이 학살당하고 모든 공동체가 축출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갇혔다. 이어진 유혈극과 박해 속에서 징벌적인 테러가 삶을 지배했다.” 혁명 정부는 그야말로 무자비했다. 아랍인들과 인도인들은 밖으로 내몰렸다. 구르나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것은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그에게 고향은 트라우마였다.** 트라우마의 특징 중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리움과 한숨의 대상이면서 상처의 발생 장소인 잔지바르로 끝없이 돌아간다. “나는 그곳에서 왔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곳에 산다”는 그의 말처럼 그의 고향은 그에게 그리움과 한숨, 강박의 대상이다. 그의 소설에 고향을 떠나 자신처럼 타지에서 살아가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다.

고향에 대한 감정과 관련하여 『배반』은 특별한 소설이다. 고향에 대한 감정이 다른 소설들보다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이 소설을 출간할 당시 구르나의 나이는 신일곱이었다. 그가 잔지바르를 떠난 시점(1968년)을 기준으로 하면 37년째에 나온 소설이었다. 그때쯤 그는 학자로서도 작가로서도 영국이라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아프리카 이슬람 이민자였다. 그러한 안정된

삶이 가져다준 여유 때문이었는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살아온 여정과 어느 정도 겹치는 화자가 나오는 소설을 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도 되지 싶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배반』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작가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첫 이야기가 1899년 케냐의 몸바사 북쪽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소설이 작가의 삶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은 1부가 마무리되고 시간대가 20세기 중반부로 넘어가고 공간도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잔지바르로 이동하면서부터다.

첫 이야기는 로맨스로 다가온다. 표면적으로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어 보이는 백인 남자와 아프리카 여자 사이의 로맨스다. 마틴 피어스라는 영국인 남자가 등장한다. 그는 다른 유럽인들의 권유로 사파리 여행에 동참했다가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그들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이탈하여 빠져나오다가 안내를 맡은 소말리아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러한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 살려내는 동아프리카 여자 레하나가 다음에 등장한다. 곧이어 두 사람 사이의 로맨스가 시작된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

간, 즉 몸바사 북쪽 지역이 1899년에는 영국 식민지였으니 남자는 비록 식민지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식민종주국인 영국의 엘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식민주의자이고, 여자는 동아프리카에서도 낙후한 지역인 소도시의 하층계급으로 피식민주의자다.

두 사람의 사랑은 스캔들이 되고 그들은 결국 소도시를 떠나 몸바사에 가서 산다. 그러나 그들의 로맨스는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을 버리면서 끝난다. 피어스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지만 그 선함이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 인종적, 식민적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강하진 못하다. 그들의 관계는 식민지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불균형을 은유한다. 인종과 계급의 차이는 이별의 방식마저도 위계적인 것으로 만든다. 한 사람은 버리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힘을 가진 식민주의자는 버리고, 힘없는 피식민주의자는 버림을 받는다. 소설의 제목에 암시된 주제가 여기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제목을 “배반”이라고 옮기고 있지만 영어 제목은 “Desertion” 즉 ‘버림’이다. “버림”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제목으로 다소 어색하여 “배반”이라고 했을 듯하다. 두 단어는 뉘앙스와 함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아 서로를 닮았다. 버리는 것은 배반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반세기를 훌쩍 건너뛰어 20세기 중반, 즉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잔지바르로 무대가 옮겨진다. 드디어 작가의 고향이 스토리의 중심이 되면서 그의 삶과 경험이 투사될 여지가 생긴다.

잔지바르에 사는 평범한 가족이 등장한다. 아이들을 가르



치는 교사인 부모는 두 살 터울로 세 명의 자식을 두고 있다. 파리다는 딸이고 아민과 라시드는 아들이다. 막내아들 라시드가 이 소설의 화자이다. 스토리가 시작될 때 아민은 부모처럼 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고, 야망이 큰 라시드는 옥스퍼드대학이나 케임브리지대학에 가서 공부하려고 준비 중이고, 파리다는 작은 양장점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다의 옷 가게를 찾는 단골손님 중 하나가 자밀라라는 여자다.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피어스와 레하나의 이야기와 잔지바르 가족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된다. 그녀는 피어스와 레하나의 손녀딸이다. 피어스가 영국으로 돌아갈 때 레나는 임신한 상태였다. 피어스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영국으로 돌아갔고, 레나는 나중에 딸을 낳았다. 그리고 그 딸이 커서 딸(아스마)을 낳았고, 그 딸이 다시 딸(자밀라)을 낳았다.

자밀라가 파리다의 양장점을 드나들면서 아민은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들의 사랑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래전 일이지만 스캔들은 이상하게 나이를 먹지 않는다. 자밀라의 외할머니에 관한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더욱이 자밀라는 이혼까지 한 여자다. 결국 아민의 부모까지 아민과 자밀라가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자밀라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녀의 할머니가 누구인가. 인도인 선원과 스와힐리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가 아닌가. 게다가 영국 남자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고, 이후로는 다른 영국 남자의 정부로 살았다. 그런 사람의 손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의 수치일 것이다. 그들이 특별히 나쁘거나 편협해서가 아니다. 편견을 공유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일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민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 여자는 유럽 남자들과 지저분하게 살았다. ... 그들은 부자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지.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여자도 비밀과 죄악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자기 할머니나 마찬가지다. 벌써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거다.

순종적인 아민은 그녀를 사랑하면서도 부모의 뜻을 존중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이긴 것이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녀를 버린다. 자신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버린 것은 버린 것이다. 소설의 제목 “배반”은 여기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피어스와 레하나의 사랑이 어긋났듯, 아민과 자밀라의 사랑도 어긋난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영국 남자가 동

아프리카 여자를 버리고, 뒤의 이야기에서는 잔지바르 남자가 혼혈인 여자를 버린다. 버려지는 것은 약자요 타자다.

이 소설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화자가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가족의 막내아들 라시드라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피어스와 레하나의 이야기를 한 것도, 잔지바르의 가족 이야기를 한 것도 라시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라보는 라시드의 눈이다. 여기에서 라시드와 작가의 접점이 형성된다. 라시드가 누구인가. 영국으로 가서 대학에 다니고 거기에 눌러앉아 교수가 되었다. 1964년에 일어난 잔지바르 혁명의 여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던 가족들과 달리, 그는 그럴 염려가 없는 영국에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맘껏 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물론 거기에서도 차별은 있었다. 아프리카인이라고 차별받고 이슬람이라고 차별받았다. 대학에 다닐 때도 그랬다. 영국 대학의 교수는 그에게 아랍 고전 시는 잊고 셰익스피어, 키츠, 롱펠로, 키플링을 읽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이었다. 그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잔지바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삶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삶이었다. 영국에 눌러앉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이득이었다. 잔지바르로 돌아가면 혁명으로 정권이 뒤집힌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될 리 만무했다. 미래는 암울했다. 그런 이유에서



돌아가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식을 불러왔다. 그는 자신이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는 죄의식에 시달렸다. 이런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작가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가깝다. 라시드가 소설 속에서 걸어온 길이 작가가 걸어온 길이어서 그렇다. 작가도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정착했다. 작가가 등장인물이고 등장인물이 작가다. 라시드가 잔지바르의 가족과 고향을 향해 느끼는 미안함은 작가가 느꼈음직한 미안함이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제목의 함의와 암시가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작가 자신이다. 라시드처럼 작가도 조국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버렸다. 이것이 그의 소설에 고향과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한숨에 죄의식이 얹혀 있는 이유다.

라시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이야기에는 ‘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관한 이야기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기다.” 그렇다. 이 소설은 라시드가 중심인 이야기기가 아니다.

피어스와 레하나의 사랑이 중심이고, 아민과 자밀라의 고통스러운 사랑이 중심이고, 가족의 험난한 삶이 중심이고, 동아프리카의 복잡다단한 인종적, 종교적, 역사적 현실이 중심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는 먼 타지에서 고향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라시드가 있다. 그리고 그 라시드는 동아프리카와 잔지바르를 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한숨과 그리움을 ‘쓰는’ 작가와 겹친다. “이 이야기에 나는 내가 있다”는 라시드의 말은 그래서 작가의 말이다. 이 소설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설 속에 그가 있다.

소설은 라시드의 귀향이 임박한 시점에서 끝난다. 라시드는 잔지바르로 돌아가서 그동안 무심했던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한다. “나는 지금껏 진심으로 바랐음에도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말하자면 이제 고향에 돌아갈 때가, 집에 가서 내 불안을 가라앉히고 나의 무심함에 대한 용서를 빌 때가 된 것이다.” 이것

은 소설 속에서 라시드가 토로하는 감정이지만 작가의 속마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작가가 잔지바르를 떠난 지 16년만인 1984년에 처음으로 잔지바르를 다시 찾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바로 이런 것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방문에 불과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갔다. 디아스포라의 삶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한숨 속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그리움과 한숨, 죄의식이 그의 소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것이 잔지바르를 포함한 동아프리카의 리얼리티를 생생하게 구현해 세계의 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썼고, 동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썼고, 동아프리카를 떠나 자기처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이슬람들을 썼다. T.S. 엘리엇은 글이란 개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작가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 다른 것에 관해 쓰는 것처럼 보여도 속내를 보면 자신에게 머물러 있거나 결국에는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모든 글은 자서전이다. 작가는 자신을 쓴다. 🍷



## 신앙인의 영화 보기와 세상

### 시작에 대한 단상 (3)

정현영 요셉, 중견사제연수원 연수사제



영화를 영화이게끔 하는 것은 편집의 역할이 큼니다. 한 번에 찍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찍든 이야기의 흐름에 맞추어서 필름을 다시 배열하는 것이 편집의 기능입니다. 루미에르와 에디슨의 영화에는 편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장면을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장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화면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편집은 기계의 오작동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메라가 잠깐 멈춘 사이에 기존의 자동차가 지나가고 다른 자동차가 들어와서 필름상에는 자동차가 갑자기 바뀐 장면이 찍혔다고도 하고, 영긴 필름을 정리하다가 필름이 겹친 것을 보고서 이중 촬영을 깨달았다고도 합니다. 또, 영화를 상영할 때 실수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사람들이 뒤로 걸어가고 무너진 건물이나 다시 서는 것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효과들을 가장 먼저 활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이런 트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마술에 짧은 필름들을 만들어서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영화 제작에도 나섰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달세계 여행>(1902)입니다. 13분 정도의 영화에서 그는 일단의 사람들이 달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고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술사였던 그는 화려한 배경과 효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대포알처럼 생긴 우주선이라든지, 우산을 커다란 버섯처럼 생긴 식물로 변화시키는 것, 지구인이 달의 우주인과 싸울 때 지구인이 우주인을 지팡이로 치면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장면과 같은 것들입니다. 또 달의 밤하늘에는 혜성이 지나가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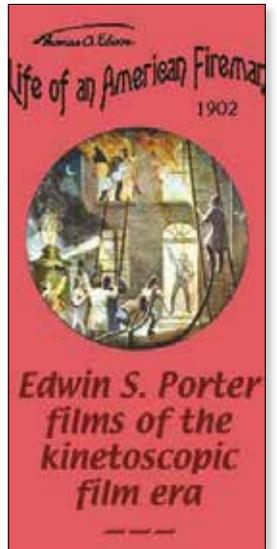
하고, 북두칠성이 뜨며, 별의 여신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필름 위에 채색을 해서 컬러 버전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로서의 영화를 잘 구성했던 멜리에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미국에서는 에드윈 포터에 의해서 <미국인 소방관의 생활>(1903)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6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필름에서 그는 다큐멘터리처럼 소방관들이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어느 아파트의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모습은 2층에서 파이프를 내려가는 모습과 1층에서 파이프를 내려오는 모습, 소방 마차들이 소방관들을 태우고 출발하는 모습과 소방서에서 나가는 모습, 소방 마차들이 도심을 거쳐 외곽의 아파트를 향해 달려 출동하는 모습, 소방관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과 바깥에서 소방 호수를 뿌리고 사다리를 설치해 사람들을 구해내는 모습을 마치 시간이 살짝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모습을 좀 더 긴장감 있게 보여주기 위한 편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예술들은 나름대로 감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굳이 격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파격 혹은 변형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소설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가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문체의 차이로 인해서 그 소설의 가지고 있는 개성이



달세계 여행, 1902  
a Trip to the Moon  
감독: 조르주 멜리에스



미국인 소방관의 생활, 1903  
Life of an American Fireman  
감독: 에드윈 포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는 시대에 따라서 그림을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는 방식이 있다면 중세의 그림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읽는 도상 해석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의 그림들도 각자의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규칙에 따라서 그려지고 있는데 그 규칙이 워낙 다양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도 영화를 읽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영화의 문법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들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른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문법에 익숙해져서 현실이라면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장면들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인 소방관의 생활>의 장면들도 같은 시간을 두 번 표현한 것처럼 보여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화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 새로움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규칙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

하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낯섬에서 오는 새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면 그 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빠른 변화는 이 잠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는 다른 예술에 비하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일상의 삶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접근해 오는 예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속도는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줍니다. 또, 프레임은 인간의 눈보다는 좁지만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의 눈은 부지런히 눈앞에 펼쳐지는 (가상의) 현실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른 예술보다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까뮈는 『이방인』에서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경꾼들 가운데 젊은이들이여는 때보다도 더 단호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활극 영화를 구경하고 나오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등장인물에 집중해서 그들이 극장에서 나올 때는 자신이 몰입한 주인공의 모습과 닮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관객은 스크린 밖에서 영화를 본 것이고 영화 안의 현실을 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화에 푹 빠졌다고 해도 영화가 끝난 후에는 다시 극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살았던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화는 편집을 거친 과장되고 왜곡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극대화 시켜서 보여줍니다. 편집을 비롯한 영화적 문법을 통해서 우리는 책을 읽듯이, 그림을 감상하듯이, 연극을 보듯이 극장에 머무르는 동안에 영화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마이브리지가 24대의 카메라로 연속사진을 시도했을 때, 그 발단은 말이 달리면서 네 발이 다 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두고 한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빨라서 인간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순간을 기계의 힘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의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사실 확인과 같은 용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로이 발명된 기계는 가장 먼저 즐거움(유희)을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물론 프로파간다(선전) 영화나 시네마 베리테처럼 현실에 개입하고자 했던 영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영화를 이용하는 것과 영화를 현실과 착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 향료길 위의 도시 - 아브닷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유다 산지를 떠나 동쪽의 아라바 계곡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다 광야를 지나서 사해를 보며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맞은편에 요르단 산지가 보입니다. 사해가 끝나갈 무렵 즈음에는 계속 보아왔던 요르단 산지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에돔’이라고 불리는 땅의 산지입니다.

‘에돔’은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형인 에사우가 에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창세기 32,4), 살갓이 붉은 그는 야곱이 만든 붉은 죽에 만아들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등 붉은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가 살았던 에돔 지역에 있는 토양도 역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해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이 에돔 지역에는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는 고대 도시 유적지이고, 다른 하나는 ‘와디 럼’이라고 하는 붉은 사막입니다. ‘페트라’는 인디انا 존스, 트랜스포

머 등 유명한 영화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곳, 페트라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 암반을 깎아서 만든 신전과 건축물들로 아주 유명한데, 19세기에 스위스 탐험가인 요한 루트비히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약 2천 년을 베일에 싸인 채 사암으로 이루어진 골짜기 깊숙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여행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 택시 또는 마차 택시를 타라는 베두인 호객꾼들 거리를 빠져나와 붉은 바위 협곡 사이의 길을 따라 한참 걸어 들어가며 ‘도대체 이런 곳에 뭐가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무렵 분홍빛의 알 카즈네(페트라리의 대표적인 건축물, 보물이라는 뜻)가 붉은 바위 절벽의 틈 사이로 신비함을 있는 그대로 뽐아내며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꼭 모험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에 있는 관광객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은 누가 만들었으며 도대체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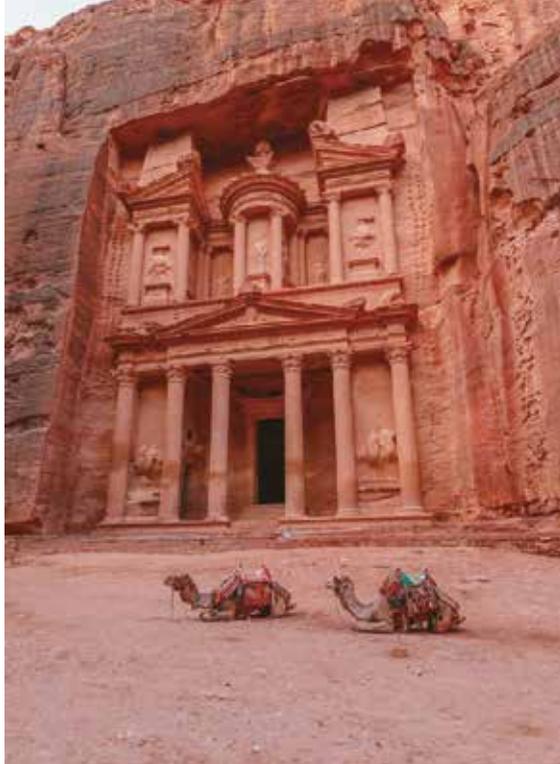
이곳은 ‘나바테아’ 왕국의 도시였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아라비아 아반도 북부 지역부터 이스라엘을 포함한 레반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물과 초목이 있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녔던 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정착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페트라 지역에 기원전 1세기에 그들의 도시를 만들고 중계무역을 하며 막대한 풍요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들은 호전적인 성격을 지녔었는데 무역업으로 부를 얻게 되자 안정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며 이곳저곳에 도시를 짓고 번영을 누리게 되지요. 이스라엘에도 나바테아인들의 도시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동서양을 잇는 고대 무역로를 꿈자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동지역을 거쳐 유럽까지 이르는 ‘실크로드’, 비단길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길이 바로 ‘향료길 (The incense route)’인데요, 이 길은 동





↑ 협곡사이로 보이는 페트라



↑ 페트라 알카즈네



↑ 친 광야  
↓ 아브닷 조형물



↑ 에인 아브닷

북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사이에 상인들이 향료를 가지고 이동하며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가 성탄 때 동방박사 이야기를 듣는데, 이들이 가져온 몰약, 유향, 황금은 향료 상인들의 장사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집트인들이 아라비아반도에서 향료를 들여온 것이 기원이라고 하는데, 향료뿐만 아니라 황금, 보석까지 품목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37km였습니다. 이 길의 상인들은 약 35km마다 여정을 쉬어갔고 이곳에 나바

테아인들의 작은 마을이 생기게 되며 나중에는 도시로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이와 같은 도시 네 개가 있는데, 쉬브타 Shivita, 아브닷Avdat, 맘쉬트Mamshit, 할루짜Haluzia입니다. 이들 중 **아브닷**에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60%에 달하는 광야 지역은 각각의 이름이 있는데, 이곳의 이름은 ‘**친 광야**’입니다. 브에르 쉘바 아래쪽에 위치한 광야입니다. 아브닷은 친 광야에 있는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향료 상인들이 머물고 쉬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시사철 물이 샘솟는 ‘**에인 아브닷**’까지 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브에르 쉘바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이어서 차를 타고 가면 약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을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수상인 벤 구리온이 말년을 보냈던 **스데 보케르 키부츠**를 들릴 수 있습니다. 키부츠는 20세기 초에 이스라엘 농촌지역에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여 만든 협동농장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키부츠들이 해체되거나 개인 자본주의로 개조된 형태(‘모샤브’라고 함)로 바뀌게 되는데, 남부 광야 지역의 키부츠들은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지역에서는 홀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벤 구리온은 이 광야지역에 키부츠를 세우는데 말년의 시간을 보내고 본인 역시 텔아비브 동쪽에 있는 라마트 간 키부츠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광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수상들의 묘는 예루살렘의 헤르즐 국립묘지에 있는데, 벤 구리온의 묘는 국립묘지가 아닌 스데 보케르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야를 순례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 아브닷

에 잘 머물 수 있었나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광야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단체 순례자들을 모시고 광야를 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에 식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가져와도 마땅히 먹을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 아브닷 국립공원 앞에 햄버거 가게가 생겨서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합니다. 순례 중에 먹어보는 이스라엘 정결레 햄버거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아브닷은 현재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보존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보통 이곳을 방문할 때는 입구에 있는 작은 전시관을 보고 난 후에, 차를 타고 언덕 위에

세워진 유적지로 이동해서 그곳을 탐방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후에 로마의 속주가 된 나바테아 왕국은 그리스-로마 양식의 건물을 짓고 생활하게 되는데, 이곳 역시 로마 양식의 빌라, 망루, 물 저장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도시를 이룬 나바테아인들은 이곳에서 와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긴 여행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한 잔의 술이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 포도주를 만들었던 확, 저장소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처에 샘, 에인 아브닷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바테아인들은 그들만의 종교를 갖고 있



↑ 벤구리온 부부의 묘

다가 로마의 흐름에 따라 비잔틴 시대 때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아크로폴리스 남쪽에 성 테오도로 대성당과 북쪽의 바실리카를 볼 수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성당 유적이 묘하게 매력적입니다. 친 광야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 아름다운 도시는 기원후 7세기 초에 큰 지진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언덕 위에 있는 유적지에 서서 광야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양의 뜨거움만 피한다면 시원함마저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 멀리에서 여러 마리의 낙타와 함께 천천히 다가오는 향

료 상인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밤에는 광야에서 특별히 재배한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피로를 덜어내며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모닥불가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여정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낙타 대신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며 여행하는 현재에도 무역사업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고 밤에 호텔에 머물러 현지 와인을 한 잔 곁들인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유적지에서 인간의 끝없이 들고도는 삶을 반추해봅니다. ☺

## 정석의 이 도시(6) 대중교통이 공짜인 나라 에스토니아

### 파르누 해변과 차이콥스키 핑크를 찍고 수도 탈린에 입성

정석 예리니모\_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트 3국 여행 6일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에스토니아를 향해 출발했다. 리가 옛 도심 성 야코보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린 뒤, 발트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 차창 밖으로 얼핏 얼핏 바다가 보였다. 발트 바다, 발트해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를 가르는 국경을 막 지나자 휴게소가 나왔다. 에스토니아 입국을 기념하는 의미로 마트에서 에스토니아 맥주를 한 병 사서 마셨다. 알렉산더 바이젠 5.2도였다.

외국에 올 땐 그 나라 기본 인사말과 좋아하는 맥주를 주문할 정도의 말은 외워서 온다. 스페인에 처음 갈 땐 “세르베싸 브르빠보르.”를 외웠고, 일본에 갈 땐 “나마비루 잇뽕 오녕아 이시마스.”를 외워 맛난 생맥주를 주문할 때 써먹었다. 중국에선 반년 살아본 덕에 “칭 라이 잇뽕 칭다오.” 정도는 언제든 술술 나온다.

발트 3국 여행을 오기 전에도 이곳 말공부를 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발트 3국

나라마다 각각의 말과 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러시아말 공부를 했고, 처음 며칠 여기 사람들에게 “스파씨바”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고맙다”고 말하려면 리투아니아 말로는 “아츄”, 라트비아 말은 “빨디에스”, 에스토니아 말로는 “아이따”라고 해야 한다. 그것도 모르고 러시아 말로 떠든 게 생각할수록 부끄러웠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에게 일본말로 말을 건넌 거와 뭐가 다를까. 그러고 보니 떠오른다. “아츄, 빨디에스”라고 말했을 때 “루우주(천만예요)”라고 답하며 환히 웃던 그 표정들이.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의 가장 북쪽에 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바로 아래고, 수도 탈린과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바다를 사이에 둔 채 마주 보고 있다. 국토면적은 6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의 절반 크기인데 국토의 3분의 1이 울창한 숲이다. 인구는 130만 명이고, 수도 탈린 인구는 약 40만 명이다. 종교는 무교(55%)가 가장 많고, 동방정교회(17%), 개



↑ 경사가 아주 완만한 파르누 해변



↑ 문화예술공간으로 되살린 합살루 성

신교(10%), 가톨릭(3%) 순이다. 국기는 파랑, 검정, 흰색의 삼색기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로 발트 3국 가운데 가장 높다. 바이킹과 게르만의 침략을 받았고, 제정러시아와 독일의 지배를 겪었다. 그 뒤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되었다가 1991년 독립했다. 발트 3국답게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세 사람만 모이면 화음을 넣어 노래를 부른다고 한다.

리가에서 탈린까지는 꽤 먼 여정이다. 가는 도중 몇 곳에 들렀다. 처음 들른 곳은 ‘파르누’ 해변. 완만한 경사가 한없이 이어져 바다 저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다. 발트 3국에 와서 처음 아름다운 발트 바다를 만끽했다. 햇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에 발을 담그고 여행의 피로를 풀었다. 발트해에 발을 담그니 비로소 발트 3국에 온 게 실감이 났다. 여기가 바로 발트 바다였구나.

파르누 해변과 탈린 중간쯤에 있는 ‘합살루’의 멋진 성도 둘러보았다. 합살루 성은 에스토니아의 대표적인 중세 성으로 성벽 길이가 803m에 이른다. 13세기 말에 건축되었고, 16세기 말부터 가톨릭 대주교의 성으로 사용되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옛 성을 지혜롭게 활용해 지금은 성 안팎 공간을 노천극장, 콘서트장, 연극 극장, 박물관 등으로 다채롭게 활

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 유적을 핫플레이스로 되살린 것이다.

합살루 성에서 머지않은 바닷가에 ‘차이코프스키 핑크’가 있다. 차이콥스키가 스물일곱 살이던 1867년 이곳 합살루에서 여름을 보내며 작곡을 했던 것을 기념해 1940년 그의 이름을 새긴 돌의자를 여기에 놓았다. 20대의 차이코프스키를 흠모했던 여인의 사랑 고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애달픈 러브스토리가 배어있는 사연 많은 의자다.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풍경이 묘하다. 흰 구름이 파란 하늘에 악보를 그리려나 보다. 그런데 왜 핑크일까? 에스토니아어 ‘핑크(pink)’는 ‘벤치(의자)’를 뜻하니 차이코프스키 핑크는 차이코프스키 의자라는 뜻이다.

드디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도착했다. 탈린 옛 도심도 빌뉴스, 리가처럼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역사도시다. 성 베드로-바오로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리고 탐방을 시작했다.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한 달 뒤쯤 발트 3국에 오신단다. 방문하는 성당들마다 귀한 손님 맞을 채비로 분주했다. 성당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이 중세도시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긴 역사의 기억과 흔적과 삶을 통째로 온전히 지켜온 이네들이 부러웠고, 그러



↑ 차이코프스키 핑크



↑ 차이코프스키 핑크에서 바라본 신비로운 구름

지 못한 우리가 부끄러웠다.

에스토니아가 부러운 게 하나 더 있다. 진짜 부러운 것은 에스토니아가 **대중교통이 공짜인 나라**라는 것이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 7월부터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물론 관광객은 제외다. 자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수도 탈린에서 먼저 시작했다. 130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는 탈린시는 2013년부터 버스와 트램과 노면전차 등, 시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Free Public Transport)을 시행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어 5년 뒤 전국에 확대한 것이다.

물론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그러나 5년 동안 수도 탈린에서의 실험 결과 구체적 데이터로 효과를 입증했다. 탈린 시내 대중교통 60여 개 노선의 무료화로 연간 1,200만 유로의 손실이 있었지만, 전입인구가 1만 명이 늘어 주민세 증가액이 1,000만 유로여서 탈린시가 부담한 금액은 200만 유로(25억 원)였다고 한다. 도심의 교통체증 감소(10-20%), 매연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10%), 저소득층의 이동권 보장 등 부수효과까지 감안하면 성공적 정책이었다는 평가다.

인구 40만 안팎의 작은 도시에서의 실험 결과이고, 130만 인구의 나라 전체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도시에도 좋고 시민에게도 좋은 선택을 장려하는 공짜정책, 할인정책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다.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손해가 아닌 ‘실리’라는 믿음을 준다며 더 많은 사람이 좋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 위기와 도시공간 배분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면, 자가용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대중교통이 답이다. 한두 명 태운 자가용이 도로 공간과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점유한다면 교통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자가용은 탁한 피다. 대중교통과 자전거와 보행, ‘대자보 3총사’는 맑은 피다. 맑은 피가 구석구석 막히지 않고 흘러야 사람도 도시도 건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하나다. 대중교통이 더 빠르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다. 에스토니아가 그걸 아주 멋지게 해낸 것이다. 아주 멋진 나라에 내가 왔음을 실감했다. 에스토니아는 어떤 나라일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



↑ 탈린 옛 도심 시청 광장



↑ 대중교통이 공짜인 나라 에스토니아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 형제 순교 성인들: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고스마와 다미아노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 브레시아의 수호성인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 주에 있는 도시 브레시아(Brescia)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성 파우스티노(St. Faustinus, 2세기경)와 성 요비타(St. Jovita, 2세기경) 형제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잔혹한 그리스도교 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귀족 가문의 두 젊은 형제 에 관한 전설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형제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잔도메니코 티에폴로, <브레시아 도시를 방어하는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1754-1755, 프레스코,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성당, 브레시아



가로팔로, <성모자와 함께 있는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16세기경, 목판에 유채, 성 파우스티노 성당, 제단화, 루비에라, 이탈리아

이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교구에서 크고 작은 성당에 봉헌될 정도로 특별했다. 성스러운 두 성인의 유해는 브레시아에서 그리스도 신앙의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공경받고 있다.

성 파우스티노와 요비타 형제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브레시아에 거센 박해가 시작되었다. 두 형제는 그리스도교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이 때문에 형제 성인은 체포되어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고통스

러운 형벌을 겪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갔다. 이미 두 형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방 브레시아의 주교인 성 아폴로니오 주교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믿음을 알고 성 파우스티노는 사제의 직분을, 성 요비타는 부제로 각각 명하였다.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두 형

제는 체포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며 맹수나 불에 던져져 혹독한 고통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맹수와 화염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도 무사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 20) 파우스티노와 요비타는 밀라노, 로마, 나폴리 등 여러 도시로 이송되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다. 나폴리에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여러 마을에서 고통을 당하고 손과 발이 묶인 채 바다에 던져졌으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 이 두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르고, 개종하기도 했다. 순교록에 따르면 두 형제가 개종시킨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마지막으로 브레시아로 다시 끌려간 두 형제 성인을 참수하도록 직접 명령을 내렸고, 도끼에 찍혀 120년 2월 15일 순교했다고 전한다.

에밀리아 주에 루비에라 도시에 성 파우스티노 성당 제단화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가로팔로(Garofalo, 1481~1559)**는 무릎 꿇고 있는 두 형제 성인을 그렸다. 왼쪽에는 사제복을 입은 성 파우스티노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제복을 입은 성 요비타의 모습이 보인다. 파우스티노 사제는 성모자가 보이는 하늘을 향해 성체성사의 신비를 상징하는

성작을 들어 올리고 있고, 요비타 부제는 왼손에 성스러운 책을 든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각자의 손에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두 형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다. 성작 바로 밑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밀동이만 남은 나무에 돋은 새순과 같이 두 성인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화관을 받게 될 것이다.

#### 의술의 수호성인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형제 성인인 파우스티노와 요비타처럼 형제인 성인으로 고스마(St. Cosmas, 4세기경)와 다미아노(St. Damianus, 4세기경)가 있다. 이들은 아라비아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신앙이 두터웠다고 한다. 두 형제는 시리아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실리시아 근방에 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준 의사들이다. 이들은 명이라는 높은 칭송을 받았고, 청렴과 겸손한 자세로 늘 하느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 브레시아 지방에서 주로 활동한 **알레산드로 본비치노(Alessandro Bonvicino)**, 일명 **모레토(Moretto, 1498년경~1554)**

는 스승인 티치아노로부터 베네치아 회화의 화려하고 조화로운 빛을 중심으로 하는 색채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모레토는 브레시아 지방의 고위 성직자인 도나토 사발로의 의뢰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제로 마르멘티노 성당 제단화를 부드러운 색채의 인물들과 함께 제작했다. 그림 정중앙 제대 바닥 위에 성체가 놓여 있고, 그 위쪽으로 날개 달린 두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베일로 가리고 있다. 그리고 화면 아래는 마르멘티노 성당의 두 성인인 고스마와 다미아노가 있다.

제대 위쪽에 커다란 성체가 현시된 성광과 신성한 빛과 불을 상징하는 초와 촛대가 놓여 있다. 그림의 성광은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유형으로 성작의 밑 부분에 성합을 붙인 모양으로 한쪽에 유리문이 달려 있다. 성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과 양쪽에 성모 마리아와 요한의 모습이 새겨 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체성사를 제정하신다. 제대 앞면에 라틴어로 “PANEM ANGELORVM MANDUCAVIT HOMO”(사람은 천사들의 빵을 먹었다)라고 적혀있듯이, 천사들이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먹는 것이다. 화면 위에는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레토,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성체>, 1540년경, 캔버스에 유채, 261x160cm, 마르멘티노 성당, 브레시아, 이탈리아

모습이지만 양손에는 당신의 수난 도구였던 십자가와 돌기둥을 들고 있다. 몸을 감싼 붉은 망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희생과 사랑, 부활의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수난과 죽음에 복종하셨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죽음을 영원히 물리치신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몸과 피)의 모습이 제대 중앙에 거룩한 그릇인 성광 속에 성체로 현시되고 있다. 현시된 성체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두 성인,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묵상을 바친다. 오른쪽에 다미아노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왼쪽에 고스마는 우리를 바라보며 오른손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두 사람의 무릎 위에는 의료도구가 놓여있다.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환자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환자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도 소중히 생각했기에 기도의 힘으로 중병을 완치하는 기적이 가끔 일어났다고 한다. 또한 두 형제는 의술을 통해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며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을 알리며 개종하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쌍둥이 형제의 자선과 친절에 대한 평판은 치료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까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황금전설』에 따

르면, 성령의 은총을 받았다는 성인들의 특별한 치료술에 관한 소문이 돌았고, 악명 높은 그리스도교 박해자였던 디오클레지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4세기 초였기에 두 형제는 즉시 체포되었다. 지방 총독 앞에 끌려간 두 형제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갖은 형벌을 받으며 배교를 강요당했다. 그러나 어떠한 고문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었다. 쌍둥이 형제에게 던진 돌은 비껴가서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갔으며 화살을 쏘아도 되돌아갔다.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으나 물결은 그들을 안전한 물가로 데려다 놓았으며, 고문 틀은 부서져 버렸다. 결국 총독은 쌍둥이 형제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그들은 참수되어 순교했다. 순교한 뒤에도 쌍둥이 형제의 전구로 인한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도미니코회 수사인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95경-1455)의 작품에서처럼,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순교 후에도 그들의 의료 활동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6세기에 교황 펠릭스 4세는 로마에 두 성인을 위해 대성당을 건립하였는데, 그곳을 관리하며 미사를 도왔던 부제 유스티아노는 치료 시기를 놓쳐 한쪽 다리가 괴저병에 걸리고 말았다. 많은 사람이 그가 죽을 것이라 여기며 치료를 포기했으나, 어느 날 밤 쌍둥이 형제가 내려와 그의 다리를 치료해 준다. 침상에 누



프라 안젤리코, <유스티니아노를 치유하는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1438-40, 목판에 템페라, 37x45cm, 산 마르코 미술관, 피렌체

워 잠을 자는 유스티아노는 이들 형제에게 수술받고 있다. 화가는 오른쪽 성인의 무릎을 꿇은 아랫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이들이 환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황금전설』에서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부제 유스티아노가 기도를 하기도 전에 그를 찾아와 치료했다고 전한다. 쌍둥이임을 알 수 있듯이 화가는 두 사람의 복장을 같게 묘사했는데, 이들이 입고 있는 빨간색 가운과 모자는 의사를 상징하는 복장이다.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쌍둥이 형제가 이식하고 있는 유스티니아노의 오른쪽 다리 색상이다. 쌍둥이 형제는 괴저병에 걸린 다리를 잘라내고 다른 다리로 이식하는 매우 어려운 수술을 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식에 사용한 다리는 전날 죽은 아프리카 노인

의 다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부제의 한쪽 다리는 희고 다른 한쪽 다리는 검은 다리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는 의학 사상 이식 수술로 여겨지는 기적을 행하여 의사와 약사의 수호성인으로 존경받고 있다. 이들은 한 손에는 약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의료도구를 들고 그림에 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림에서도 유스티니아노의 머리맡에는 이들의 의술과 관련된 상징물인 유리 약병이 놓여 있다.

“이제 내가 이 도성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 주겠다.”(예레 33, 6)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의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02-727-2078

**직장인들을 위한 미사 소개**

바쁜 일상 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풍성한 미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 명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일시: 매주 금요일 12시 15분

◎ 중림동 주변 직장인 대상

- 장소: 중림동 약현 성당
- 일시: 매월 첫째 목요일 12시 10분



**2023년 직장공동체 봄 피정**

일상을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분의 사랑과 기쁨에 젖어들 수 있는 가톨릭직장인 피정을 실시합니다. 직장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 제: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마태 8, 13)
- 일 시: 2023. 3. 11(토), 10:00~17:00
- 장 소: 복자사랑 피정의 집
- 회 비: 30,000원
- 접수마감: 3. 2(목) 17:00 (선착순 50명)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모집**

-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 연습/미사: 매주(금) 19:30/둘째(금) 20:00, 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단장 010-5760-6638



# 명동밥집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 14.16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함을 믿습니다.

힘든 상황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기꺼이 따스한 한 끼를 드릴 것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  
선함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http://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 ([mdbj.or.kr](http://mdbj.or.kr))





**penance** [pe-nən(t)s]

: a sacramental rite that is practiced in Roman, Eastern, and some Anglican churches and that consists of private confession, absolution, and a penance directed by the confessor.



[www.catholicworkers.or.kr](http://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mailto:gikjang@catholic.or.kr)